

팬데믹 이후 교회와 사회 변화 이해와 소그룹 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조사통계 데이터 중심으로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지용근

국문초록

본 연구는 물질적 풍요 속 깊어지는 현대 사회의 소외감과 고독감이라는 병리적 현상을 진단하고,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한 한국교회 소그룹의 목회적 의미와 역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양한 조사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한국교회 소그룹 상황과 운영 실태, 유익성 그리고 모임빈도, 모임시간, 모임장소, 모임내용, 소그룹 교재, 리더교육 등 운영상의 개선점을 전방위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그룹 사역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편으로 대형교회보다 대형교회보다 상대적으로 소그룹이 더 취약한 소형교회 소그룹 전략과 신앙 소그룹이 아닌 등산반, 운동반, 독서방 같은 취향 소그룹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개인주의와 단절의 시대에 소그룹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들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치유하며, 영적 성장 뿐 아니라 실제 교회 성장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임을 통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개교회에서 소그룹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의미있는 지침이자 가이드라인이 되길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diagnoses the pathological phenomena of deepening alienation and loneliness in modern society amidst material abundance, and aims to profoundly analyze the pastoral significance and role of small groups within Korean churches in response to these contemporary challenges. Specifically, by utilizing diverse survey and statistical data, this research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current state and operational realities of small groups in Korean churches, their benefits, and operational improvements across various aspects such as meeting frequency, duration, location, content, curriculum, and leader training. Based on this comprehensive analysis, the study seeks to propose strategic direc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Furthermore, this study addresses small group strategies for smaller churches, which are relatively more vulnerable than larger churches in small group implementation, and also explores interest-based small groups such as hiking clubs, sports groups, and book clubs, which are distinct from faith-centered small group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through statistical data, confirms that in an era of accelerated individualism and disconnection following the pandemic, small groups are a crucial and essential strategy for churches to fulfill their inherent mission, heal members' loneliness and alienation, and foster not only spiritual growth but also actual church growth. We hope this study will serve as a meaningful guideline and guide for each churches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their small group strategies.

1. 들어가며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와 기술 발전이라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사람들의 깊어지는 소외감과 고독감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는 개인에게 끊임없는 적응과 경쟁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단절감과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은 역설적으로 피상적인 관계만을 양산하며, 진정한 유대와 소통의 부재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물리적 거리를 넘어 심리적 거리감마저 키우면서, 파편화된 현대인들은 이전보다 더욱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게 되어 정서적 지지 기반을 상실하고,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특징은 개신교 교회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과거보다 느슨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성향이 교회 내로 들어와 목회적으로 개개인의 필요와 상처를 깊이 있게 돌보는 데 한계를 보인다. 요즘은 성도들이 가정 심방도 거부하는 추세여서 목회자가 성도와 깊이 있는 상담, 신앙적 이야기를 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여, 공동체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와 지지가 되어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소그룹은 현대 사회의 소외된 영혼들에게 필수적인 공동체적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소그룹은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친교, 교육, 봉사, 전도/선교 등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핵심적인 단위로서, 대그룹 예배에서는 성도 간에 경험하기 어려운 친밀하고 역동적인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소그룹은 단순히 몇몇 사람이 모여 친교를 나누는 것을 넘어, 성도들이 삶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동적인 공동체이다. 소그룹 안에서 성도들은 익명성을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고, 깊은 신뢰와 사랑을 경험하며, 개인의 신앙 여정을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나눌 수 있다. 소그룹은 분절된 현대 사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기능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장치가 된다.

본 글은 교회 소그룹의 목회적 의미를 고찰하고, 그 실제적인 운영 방식과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조사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그룹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것이다. 또한, 소그룹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한계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교회 내 소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소그룹이 현대 교회의 중요한 사역 단위으로써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풍요롭게 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써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현대 사회의 변화, 한국 사회의 특징

현대 사회를 파편화된 사회라고 한다. 사회학에서 ‘사회(Society)’란 구성원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기대가 있을 때 사회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한국 사회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2,412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6년 사이 무려 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60대 중장년층 고독사 비율이 전체의 62%의 비율을 보이는데, 남성이 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¹ 한국 사회의 중장년층 남성들의 고립도가 심하다는 증거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산다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이다. 이 순위가 깨지질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2023년 기준 연간 13,978명이었는데, 시간당 1.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서울 한강 다리에서 투신자살을 많이 하는데, 경찰 보트가 하루에 80번을 이동한다는 보고도 있다. 10대 청소년의 사망원인을 보면 자살이 전체 사망자의 46%나 되고, 20대 청년들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53%까지 된다.² 주변인의 자녀가 사망했다고 하면 자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1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2023.02),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2024.10.)

2 통계청,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24.10.

이다.

이번에는 우울증을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이미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 2018년 75만 명이었던 우울증 환자가 2013년에는 100만 명을 넘겼다.³ 4년 사이에 무려 33%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대의 경우 우울증 환자가 4년 사이 무려 90%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갖는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인간관계는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인간관계이다. 이런 관계의 특징은 사람들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기보다 수직적 경향이 강하다. 이 관계에서는 호칭도 주로 ‘선배, 형님’과 ‘후배, 동생’으로 불린다. 이런 모임에서 어떤 이슈에 대해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이야기하면 ‘튀는 사람’으로 낙인찍힌다. 그저 여러 사람에게 두루 두루 맞추어 주어야 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일방적 관계의 사회적 모임과 조직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살롱 문화’가 부상하고 있다. 개인의 취향 중심으로 모이는 살롱 모임에서는 나이와 직업, 성별을 따지지 않는다. 호칭도 대개 ‘~~님’으로 부른다. 모임에서는 강요가 없고, 나의 사생활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느슨한 관계를 유지할 뿐이다. 모임에 참석하고 말고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나와 생각과 취향이 다른 사람을 맞추기 위해 감정 노동을 할 필요도 없다. 직장에서는 나의 영혼과 상관없이 주어진 일을 한다면 살롱 모임에서는 내 자아를 찾아 키워가는 행복을 누린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사회적인 관계에 신경쓰는 것보다 가족, 친한 친구 같은 소수의 몇 명에게 충실하고 싶어 한다. 인간관계도 더 많은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고 심지어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한다. 소위 느슨한 인간관계를 원한다, 이러한 사회 트렌드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느슨한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71%, ‘가족과 친한 친구 몇 명에 충실하고 싶다’ 76%로 인간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한국인의 인간관계 인식 변화 (동의율, %)⁴

3 남인순 국회의원실, “우울증 환자 100만명 시대 20대 여성 가장 많다” 보도자료 참조, 2023.10.

4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모임 및 취향 소비 관련 인식 조사”, 2022.09.
(정기적 모임 참여 경험이 있는 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7.)



한국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아니 사랑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한국인은 좀 유별나다. 미국의 퓨리서치센터가 경제 선진국 17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있게 만드는 것’ (What makes life meaningful?)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가가 '가족'을 1위로 응답했는데, 한국만 '물질적 풍요' 즉 돈을 1위로 응답했다.⁵ 이 데이터는 국내 언론에도 소개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에게 5-10년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더니 1위로 '돈'(53%)이 응답됐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돈에 대해 집착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고독사, 자살률, 우울증 등 사회적 병리 현상이 심각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고 느슨한 관계를 지향하는 흐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한편으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물질적 풍요, 돈에 대해 지나치게 집중한다. 이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인은 외롭다. ‘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에 대해 우리 국민 55%가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2명 중 1명 이상이 외롭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고독부가 정부 부처로 있는 영국(44%)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OECD 지표인 사회적 고립도, 즉 스스로 고립돼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전체 국민 중 33%(2023년 기준)로 3명 중 1명꼴이다.⁶ 이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위)이다.⁷

5 Pew Research Center, “What Makes Life Meaningful?” Views From 17 Advanced Economies, 2021.11.18. (17개 경제선진국 성인남녀 18,850명, 전화/온라인조사, 2021.02~05) 이 조사는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것(What Makes Life Meaningful?)을 주관식으로 질문하여 3개까지 응답을 받아, 20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항목별 응답률을 집계한 것임

6 지표누리, 국민삶의지표, “사회적 고립도” 파트, 202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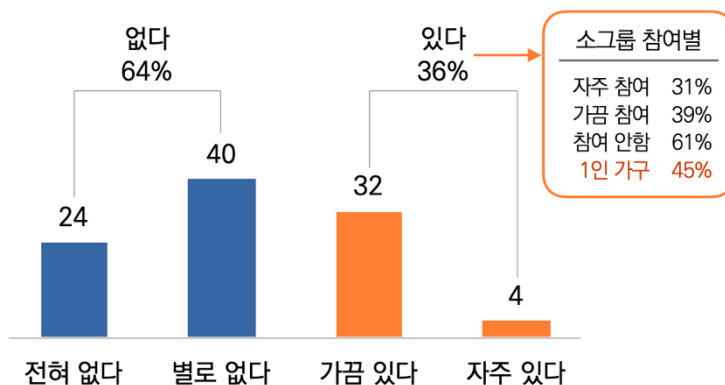
7 노컷뉴스, “빈곤이 낳은 '외로운 죽음'...취약계층에 왜 늘어갈까” 기사 참조

(<https://www.nocutnews.co.kr/news/5831349>)

원자료 출처 : OECD,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2020.03.09.

이번에는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교회로 갖고 가보자.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교회 출석자를 대상으로 교회에서의 외로움을 조사해 보았다. 조사 결과 36%의 성도들이 외롭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그들에게 왜 외로움을 겪고 있는지 물었다. 답은 ‘교회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사람이 없다’였다. 아이러니하다. 공동체성으로 묶인 교회이지만 그 안에서도 외로움을 겪고 있는 자가 3명 중 1명 이상이 있다는 뜻이다. 아래 그래프에서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다. 교회 내 외로움 비율이 소그룹 참여별로 크게 다르다. 즉 소그룹 참여하는 성도는 외로움 비율이 31%인데 반해, 참여하지 않는 성도는 외로움 비율이 61%까지 크게 상승한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소그룹이 교회 내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공동체성을 올리는데 매우 핵심적인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제 다음 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계 데이터를 중심으로 다루어보겠다.

그림) 교회 내 외로움 정도 (교회 출석자, N=1551, %)⁸



3.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1) 한국교회 소그룹 상황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한국교회 내 소그룹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는 77%로 나타났다. 23%의 교회는 소그룹 사역을 어떤 이유에서든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교회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30명 미만 소형교회는 소그룹이 있는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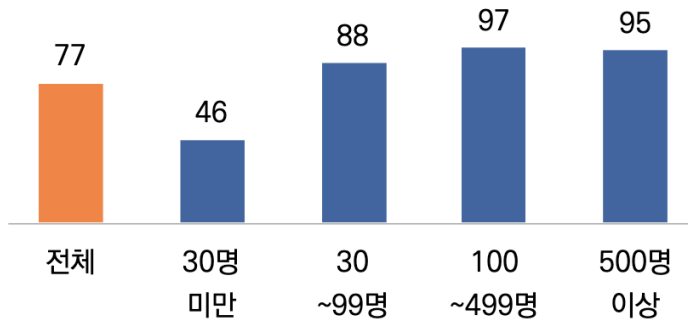
(Gallup World Poll (database),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8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개신교인 대상)”

(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3.05.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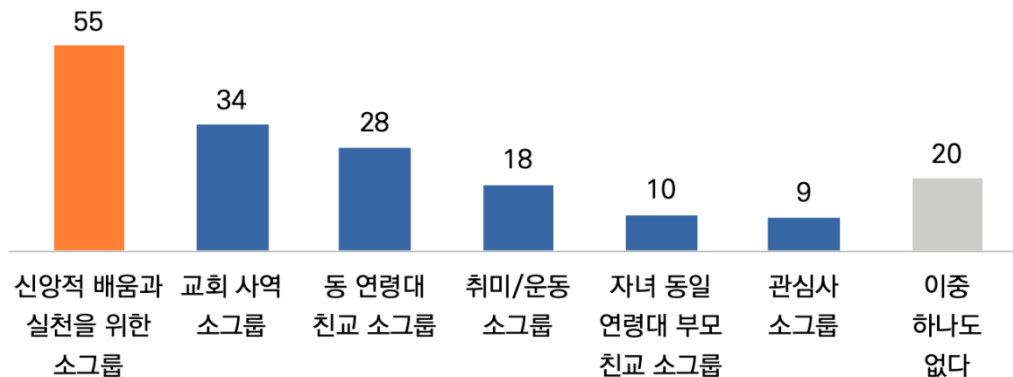
율이 46%로 절반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석 교인 30명 이상만 돼도 대부분의 교회가 소그룹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림) 소그룹 ‘사역 있다’ 비율(담임목사, 교회규모별, %)⁹



그럼 성도들은 교회 소그룹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성도들 개인의 신앙적 배움과 실천을 위한 구역 모임, 속회, 셀, 목장 같은 '신앙 소그룹' 참여율은 55%로 전체 출석 교인 중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남녀 선교회 같은 '사역 소그룹'은 34%, 취미/운동 같은 '취향 소그룹'은 18%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참여하고 있는 소그룹 (교회 출석자, %)¹⁰



이제부터 신앙 소그룹에 대해 좀 더 들어가 보자.(이하 신앙 소그룹을 소그룹으로 통칭하여 사용하겠다) 성도의 소그룹 참여 정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참석’ 40%, ‘가끔 참석’ 25%로, 교회 출석자 중 소그룹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10명 중 4명

9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진단을 위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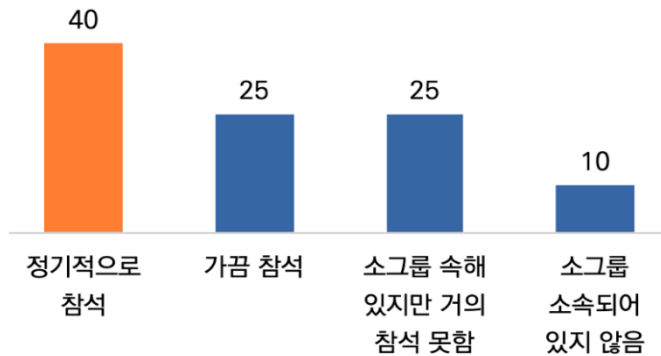
(전국 교회출석 기독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3.11. 지앤컴리서치)

10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교회출석 기독교인 1551명, 온라인조사, 2023.05. 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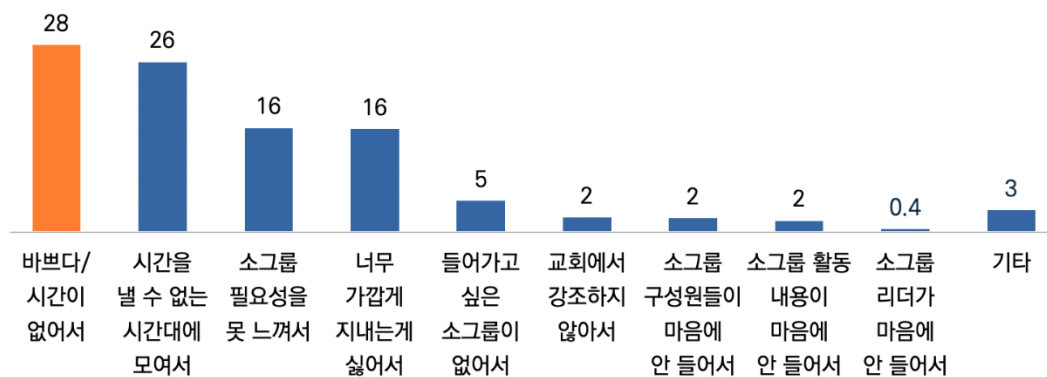
꼴로 나타났다.

그림) 소그룹 참여 정도 (소그룹 있는 교회 출석자, %)¹¹



이번에는 소그룹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시간이 없어서/바쁘다’와 ‘시간을 낼 수 없는 시간대에 모여서’가 각각 28%, 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필요성 못 느껴서’ 16%, ‘너무 가깝게 지내는게 싫어서’ 16%, ‘들어가고 싶은 소그룹이 없어서’ 5%,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아서’ 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 교회가 소그룹 모임 시간 조정, 목회자의 지속적인 강조,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 개발, 지속적인 리더 교육 등을 통해 성도들의 참여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림) 소그룹 참여하지 않는 이유 (소그룹 참여하지 않는 성도, %)¹²



11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진단을 위한 조사”
(전국 교회출석 기독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3.11. 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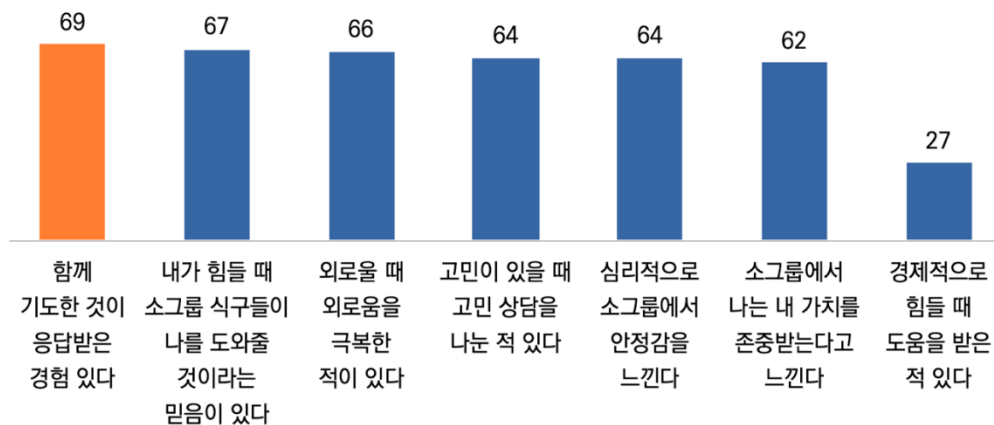
12 위와 동일

2) 소그룹의 유익함

앞에서 언급했지만, 파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소그룹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유익함을 던져준다. 이는 조사 결과에서도 증명되는데 함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은 경험이 있고,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고, 소그룹 안에서 내 가치를 존중받는 느낌이 들게한다. 심지어는 소그룹 활동자 10명 중 3명(27%)은 소그룹 구성원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소그룹에 대한 느낌

(소그룹 활동자,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¹³



이와 관련, 소그룹 활동자와 비활동자 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소그룹 활동자들은 비활동자에 비해 성도들이 서로의 형편과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어려울 때 서로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높으며, 실제 비활동자보다 교인 가족과 식사라든지 교인 가족과 여행이나 봉사 활동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그야말로 소그룹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교회 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뤄진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신앙 소그룹 식구’라는 응답이 37%로 압도적으로 높을 정도로 교회 내 소그룹은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표) 교회 내 관계에 대한 인식(소그룹 활동자 vs 비활동자,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5점 척도, %)¹⁴

13 위와 동일

14 위와 동일

구분	우리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형편과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우리교회 성도들은 어려울 때 기꺼이 서로 물질, 시간 등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
소그룹 활동자	62	64
소그룹 비활동자	39	46

표) 교인과의 함께 하는 활동 (소그룹 활동자 vs 비활동자,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5점 척도, %)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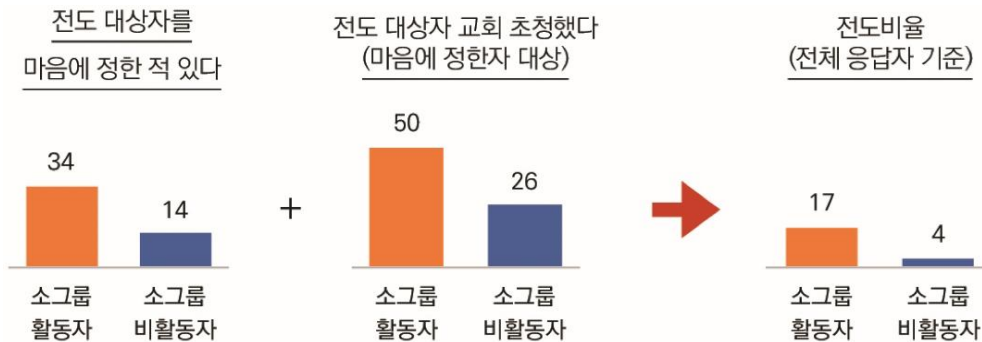
구분	교인 가족과 식사	교인 가족과 여행	교인과 취미 /운동/문화관람	교인과 사회봉사활동
소그룹 활동자	78	39	55	55
소그룹 비활동자	45	17	26	29

소그룹의 유익성에 대해 논의할 때 빠뜨리지 않고 언급해야 할 게 있다. 소위 전도 활동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이와 관련 실험을 했는데 내용은 이렇다. 소그룹 활동자 500명, 비활동자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지난 1년 사이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에 정한 적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소그룹 활동자는 34%, 비활동자는 14%가 각각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그 사람을 교회에 초청해서 데리고 왔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소그룹 활동자는 50%가, 비활동자는 26%가 각각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를 전체 응답자로 환산하면 소그룹 활동자는 지난 1년 사이에 한 명이라도 교회에 전도해서 데리고 비율이 17%, 비활동자는 4%로 나타났다. 두 그룹 간에 4배 정도 차이를 보였다. 이를 보면 교회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명해진다. 소그룹 활동자이다. 그만큼 소그룹은 교회 전도에 있어 매우 강력한 영향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전도 실태 (소그룹 활동자 vs 소그룹 비활동자, %)¹⁶

15 위와 동일

16 목회데이터연구소, “소그룹실태조사”, (전국 교회출석자 중 소그룹활동자 500명, 비활동자 500명, 202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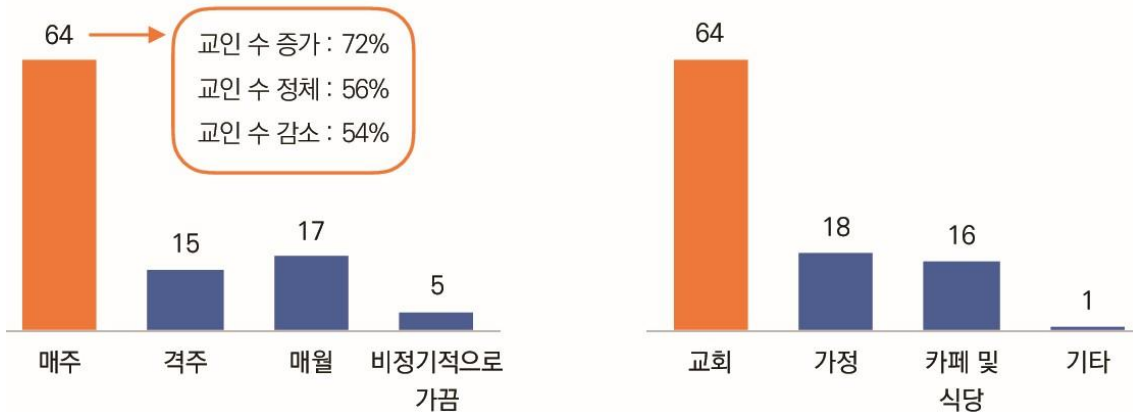
2) 소그룹 운영 실태

교회마다 소그룹 운영 형태는 일률적이지 않다. 교회 형편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 파트에서는 한국교회 소그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모임주기이다. 조사 결과 ‘매주’ 모이는 경우가 64%로 가장 높았으며, ‘격주’ 15%, ‘매월’ 17% 등으로 교회 3곳 중 2곳 정도만 매주 모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매주 모이는 비율을 팬데믹 이후 교인 수 증가 여부별로 보면, 교인 수가 증가한 교회는 72%, 교인 수가 감소한 교회는 54%로 큰 차이가 난다. 즉 소그룹을 매주 운영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이야기다.

또 소그룹 모임 장소에 대해서는 '교회'가 6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정' 18%, '카페/식당'이 16% 정도로 나타났다. 사도행전 2장에 소그룹 관련 말씀이 나오는데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한다. 즉 소그룹은 집에서 모이는 게 성경적 원형인데 한 세대 전만 해도 구역 모임 등 많은 소그룹이 가정에서 행해졌지만, 지금은 집에서 모이는 게 여의치가 않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개인주의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집의 문을 열어주기를 꺼린다. 심지어 이제는 목회자들이 가정 심방도 어려운 시대가 됐다. 최근 들어 한국교회에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애고 그 시간에 소그룹을 운영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책이라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한 가지 있다. 모임의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1시간 또는 기껏해야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는데, 이 정도 시간으로는 구성원 간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8명 정도가 1시간 정도 하는 소그룹에서 어느 소그룹원이 자신의 상처, 고민거리 등 깊은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적어도 20~30분이 훌쩍 지나게 된다. 그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시간을 자신이 독차지하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를 마음 놓고 꺼내기가 쉽지 않다. 반면, 집에서 소그룹을 하게 되면 끝나는 시간을 열어놓을 수가 있다. 집에서 할 경우 보통 저녁 시간에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이야기하다 보면 밤 11시, 12시에 마칠 수 있다. 집에서 소그룹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그룹 운영에 있어 '모임장소'와 '모임시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 요인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본인이 참석하는 신앙소그룹 모임 주기(소그룹 활동자, %)¹⁷ 그림)본인이 참석하는 신앙 소그룹 장소(소그룹 활동자, %)¹⁸



이제 소그룹 모임 시간에 대해 살펴보자. 전체 평균은 1시간 20분으로 집계됐는데 이 역시 팬데믹 이후 교회 성장 여부별로 다른 결과를 보인다. '2시간 이상'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경우 교인 수가 증가하는 교회는 34%인 반면, 교인 수가 감소하는 교회는 25%로 두 그룹 간 약 10%p 정도 차이를 보였다. 즉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소그룹 모임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소그룹 모임 방식은 어떨까? 팬데믹이 우리에게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소개해 주었는데 소그룹 모임시 온라인 방식이 어느 정도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면으로만 소그룹 진행하는 경우는 63%, 온오프라인 병행하는 경우가 32%, 비대면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5%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신앙 소그룹의 온라인 모임에 대한 성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는데, 절반이 넘는 소그룹 활동자들은 대면 모임을 못할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소그룹 모임을 대면으로만 고집하지 않는 성도들의 인식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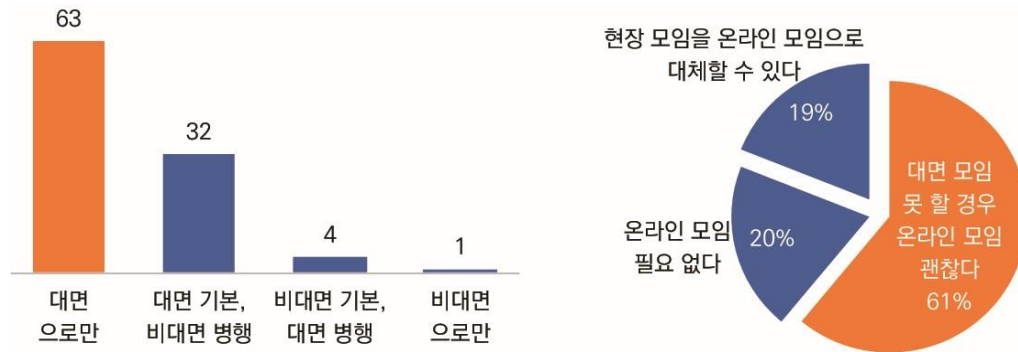
그림) 본인이 참석하는 신앙 소그룹 모임 방식(%)¹⁹ 그림) 신앙 소그룹의 온라인 모임에 대한 의견²⁰

17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한국교회 소그룹활동 실태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교회출석자 중 소그룹 활동자 1000명, 지앤컴리서치, 2023.04.)

18 위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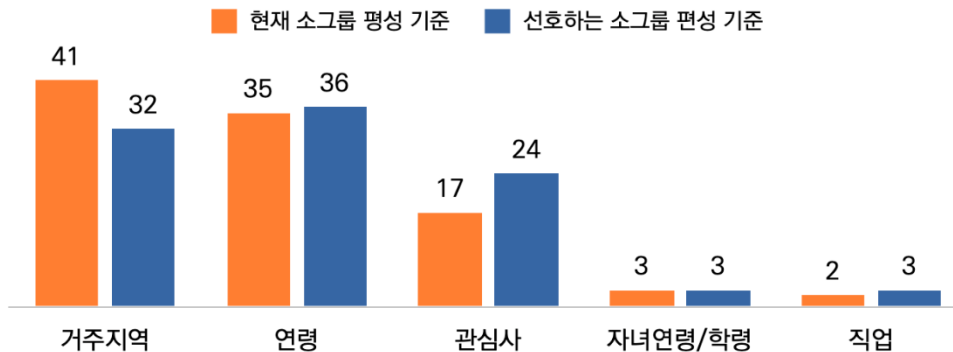
19 위와 동일

20 위와 동일



이번엔 소그룹 편성 기준이다. 현재 소그룹 편성 기준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는데, ‘거주지역’(41%)이 ‘연령’(35%)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선호하는 편성 기준을 물어보면 ‘연령’이 ‘거주지역’을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또한 ‘관심사’ 역시 현재 비율보다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삶을 나누는 모임이기 때문에 동질적인 변수인 연령이나 관심사별 편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현재 소그룹 편성 기준 vs 선호하는 소그룹 편성 기준
(상위 5위, %)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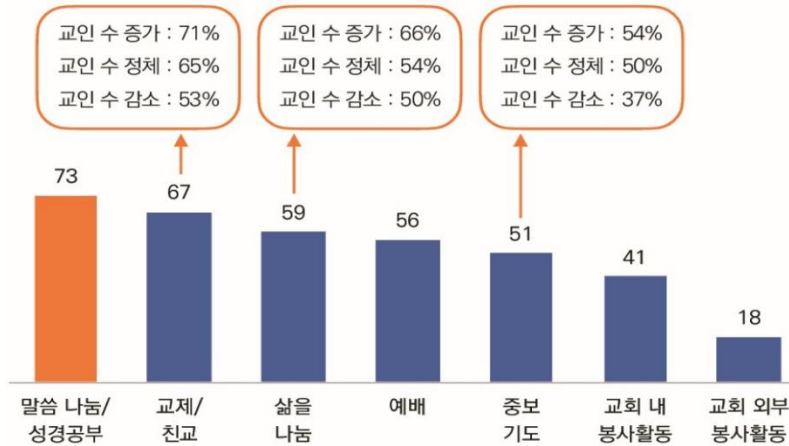


기독교인들은 소그룹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까? 조사 결과 ‘말씀 나눔/성경공부’가 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제/친교’ 67%, ‘삶을 나눔’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첫 번째로 응답한 말씀 나눔/성경공부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교제/친교, 삶을 나눔, 중보기도 이 세 항목에서 교인 수 변화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교인 수가 증가하는 교회일수록 삶을 나누는 비율과 중보 기도 비율이 높다. 특히 중보 기도가 중요한데 소그룹 전문가들은 임상실험 결과 깊이있는 중보 기도를 받은 소그룹원은 결코 그 소그룹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만큼 삶을 나누고 서로

21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진단을 위한 조사”
(전국 교회출석 기독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3.11. 지앤컴리서치)

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가 소그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림) 소그룹 활동 내용 (소그룹 활동자, 중복응답, %)²²



한국교회 소그룹은 교재 사용률이 얼마나 될까? 소그룹 활동자에게 교재나 유인물이 정기적으로 제공되는지 물어보았는데, 절반 정도(50%)가 제공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50%는 제공되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제공된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이 역시 교인 수 증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교인 수가 증가하는 교회는 정기적으로 교재(유인물)가 제공되는 경우가 59%였는데 교인 수가 감소하는 교회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29%로 나타났다. 이는 소그룹 운영에 있어 교재 제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데이터라 할 수 있다.

그림) 소그룹 모임에서 교재/유인물 정기적 제공 여부 (소그룹 활동자)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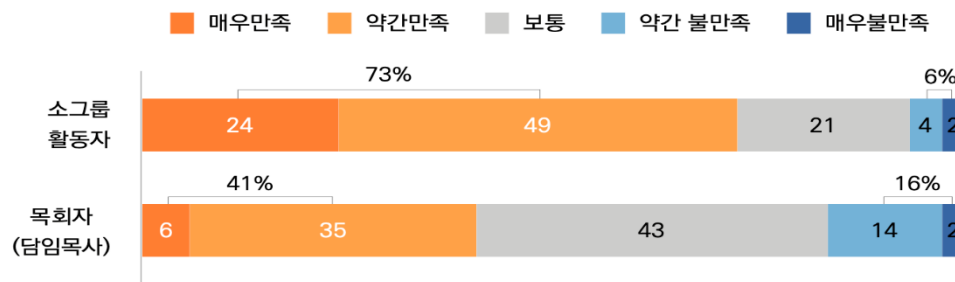
22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한국교회 소그룹활동 실태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교회출석자 중 소그룹 활동자 1000명, 지앤컴리서치, 2023.04.)

23 위와 동일

3) 소그룹 만족도 및 개선점

한국교회 소그룹 활동자들은 그들의 소그룹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조사 결과 ‘매우 만족’ 24%, ‘약간 만족’ 49%로 합해서 7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목회자(담임목사) 그룹과 동일하게 물어보았는데 목회자들은 뜻밖에도 그들의 교회 내 소그룹에 대한 만족도가 성도들보다 크게 떨어졌다. 즉 목회자들의 소그룹 만족도는 41%로 성도들 73%와 큰 차이를 보인다. 왜 그럴까? 목회자들의 소그룹 불만 이유를 살펴보면 ‘소그룹 리더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가 33%로 가장 높은 1위로 응답돼 소그룹 리더에 대한 불만 요인이 비교적 커 보였다. 다음으로 ‘소그룹이 잘 모이질 않아서’ 30%, ‘신앙 성숙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21% 등의 순이었다. 목회자는 소그룹이 성경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리더를 비롯, 소그룹 구성원들이 잘 따라와 주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만족도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림) 소그룹 만족도 (소그룹 활동자 vs 담임목사, %)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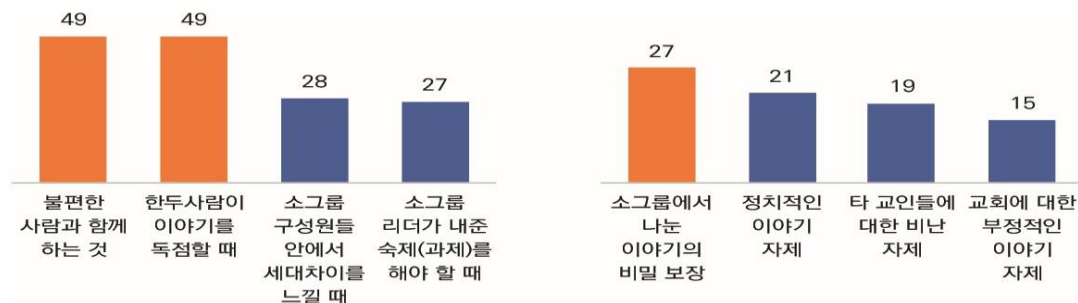
그럼 소그룹에 직접 활동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점을 개선하기를 원할까? 먼저 소그룹에서 주의할 점을 물었더니, ‘비밀보장’이 1위로 응답됐다. 소그룹을 잘 운영하고 싶은데 잘 안되는 목회자들과 상담해 보면, 대체로 비밀보장이 안된다는 불멘소리를 많이 한다.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소그룹에 꺼내 놓고 싶어도 소그룹 구성원들이 비밀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깊은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 만일 자신의 깊은 고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소문이라도 난다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을 것이고 소그룹에 참석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서울 강남의 어떤 교회는 (이 교회는 소그룹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이다) 소그룹 시작하기 전에 서약서를 받는다. 서로 소그룹에서 나눈 이야기는 집에 가서도 발설하지 않는다는 서로 간 약속을 하는 것이다. 비밀보장이 되어야 구성원 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서로

24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진단을 위한 조사” (전국 교회출석 기독교인 1000명, 담임목사 506명, 모바일/온라인조사, 2023.11~2024.01. 지앤컴리서치)

간 깊은 이해와 중보 기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밀보장은 소그룹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Key라 할 것이다. 비밀보장 다음으로 주의 사항은 ‘정치적인 이야기 자제’ 21%, ‘타 교인에 대한 비난 자제’ 21%,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 자제’ 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응답들이 순위권 안에 드는 걸 보면, 한국의 소그룹에서 대화 내용이 정치적이거나, 교회나 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신앙 소그룹 모임이 부담스러워서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불편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 49%, ‘한두 사람이 이야기를 독점할 때’ 49%, ‘구성원 간 세대 차이를 느낄 때’ 28% 등의 순이었는데, 목소리가 큰 ‘big mouth’를 소그룹 리더가 여하히 잘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잘 살피서 타 그룹으로 이동시켜 줄 수 있고, 구성원 간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기 위해 연령별 소그룹으로의 전환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신앙소그룹 모임이 부담스러워 할 때 (상위 4위, 중복응답, %) ²⁵ 그림) 신앙 소그룹에서 주의해야 할 점 (상위 4위, %) ²⁶



4) 소그룹 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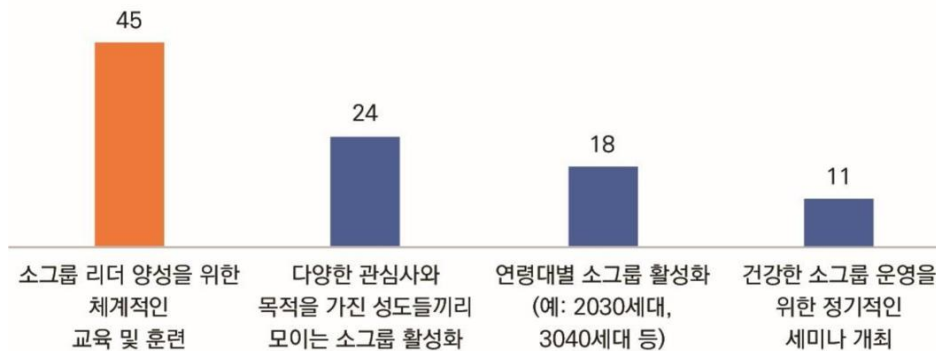
많은 소그룹 전문가들은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소그룹 리더’ 라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실제 교회에서 소그룹을 운영하더라도 잘 되는 소그룹이 있는 반면 잘 안되는 소그룹이 있기 마련인데, 대체로 리더의 역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에서 소그룹과 관련, 목회자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중 일부를 소개하면, 소그룹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이 45%로 압도적 1위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관심사/연령별 중심의 소그룹 활성화’, ‘정기적 세미나 개최’ 등의

25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한국교회 소그룹활동 실태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교회출석자 중 소그룹 활동자 1000명, 지앤컴리서치, 2023.04.)

26 위와 동일

순이었다. 그만큼 소그룹에서 리더를 세우고 이들을 얼마나 잘 훈련시키는가에 따라 소그룹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년 전 필자가 강의 요청을 받아 대전의 어느 대형교회 소그룹 리더 대상 강의를 간 적이 있었다. 강의 후 그 교회 소그룹 담당 부목사와 잠깐 대화를 나누었는데, 담임목사님이 아무리 바빠도 매주 주일마다 소그룹 리더 교육을 직접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교회는 소그룹으로 성장한 교회인데 매우 공동체성이 높은 모범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알려져 있다.

그림) 소그룹을 강화시키기 위한 필요 요건 (담임목사 대상, %)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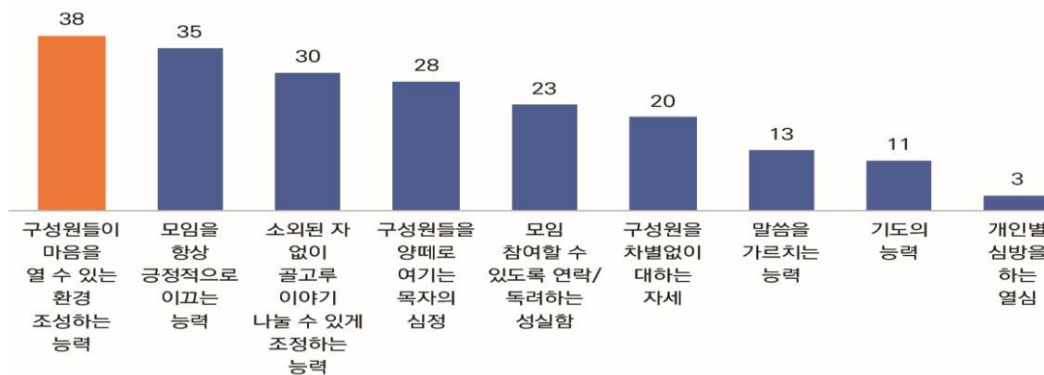


이제 구체적으로 소그룹 리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소그룹 활동자들에게 리더의 자질에 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구성원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능력’이 3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모임을 항상 긍정적으로 이끄는 능력’ 35%, ‘소외된 자 없이 골고루 이야기 나눌 수 있게 조정하는 능력’ 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은 13%, ‘기도의 능력’은 11%로 하위권에 랭크됐다. 이같은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도들은 소그룹 리더의 영적 능력보다는 리더십을 갖춘 조정자, 즉 뛰어난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를 선발할 때 영성도 중요하지만,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자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이러한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소그룹 리더 교육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림) 소그룹 리더의 자질 (1+2순위, %)²⁸

27 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목회환경과 목회실태조사’, (전국교회 담임목사 434명, 모바일조사, 지앤컴리서치, 2022.08)

28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한국교회 소그룹활동 실태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교회출석자 중 소그룹 활동자 1000명, 지앤컴리서치, 2023.04.)



앞에서 성도들(소그룹 구성원)과 목회자들에게 소그룹 만족도를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소그룹 리더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자. 목회자들(담임목사)은 일단 성도들보다 소그룹에 대해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다. 소그룹 리더에 대해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는데, 리더 만족도에서 성도들은 74%를 보인 반면, 목회자는 40%라는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어서 목회자와 성도 두 그룹에게 소그룹 리더의 자격에 관해 물어보았는데 두 그룹 간에 상이한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성도는 리더의 자격으로 ‘소외되는 구성원이 없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1위를 꼽았는데, 목회자는 ‘구성원을 돌보는 일에 대한 부지런함’을 1위로 꼽았다. 무슨 차이인지 알겠는가? 목회자는 일에 대한 부지런함, 즉 일을 해야 한다는 포인트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성도는 소그룹 리더에 대해 일하는 것보다는 소그룹에서 소외되는 자 없이 자신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목회자들이 소그룹원들과 소그룹 리더와 잦은 대화/교제를 통해 이 인식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게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림) 소그룹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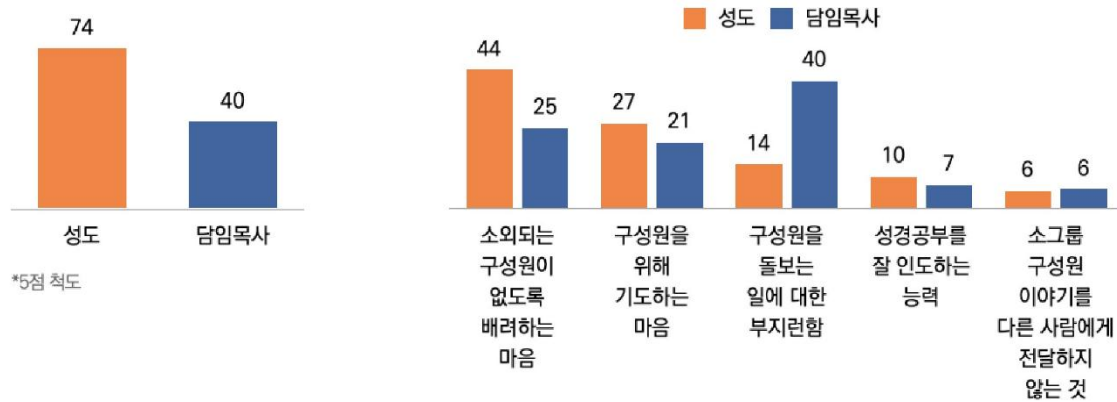
매우+약간 만족한다, %) ²⁹

그림) 소그룹 리더의 자격

(소그룹 구성원 vs 담임목사, %) 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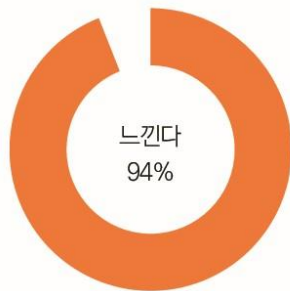
29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진단을 위한 조사” (전국 교회출석 기독교인 1000명, 담임목사 506명, 모바일/온라인조사, 2023.11~2024.01. 지앤컴리서치)

30 위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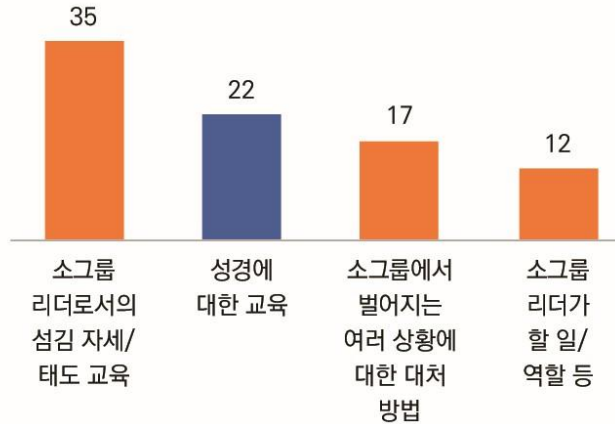
이번에는 소그룹 리더 교육에 대해 알아보자. 소그룹 리더에게 리더 교육 필요성을 물어보니 94%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그럼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소그룹 리더로서의 섬김/자세/태도 교육'(35%)을 1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성경에 대한 교육'(22%)을 2위로 꼽았다. 소그룹 리더들은 '성경 교육'보다는 '리더십 교육'에 초점을 맞춰 교육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림)소그룹리더 교육 필요성*
(소그룹 리더, 자주+가끔느낀다 비율)³¹



*4점 척도임

그림)소그룹리더를 위한 필요 교육 내용(리더교육 필요함 응답자, 상위4위, %)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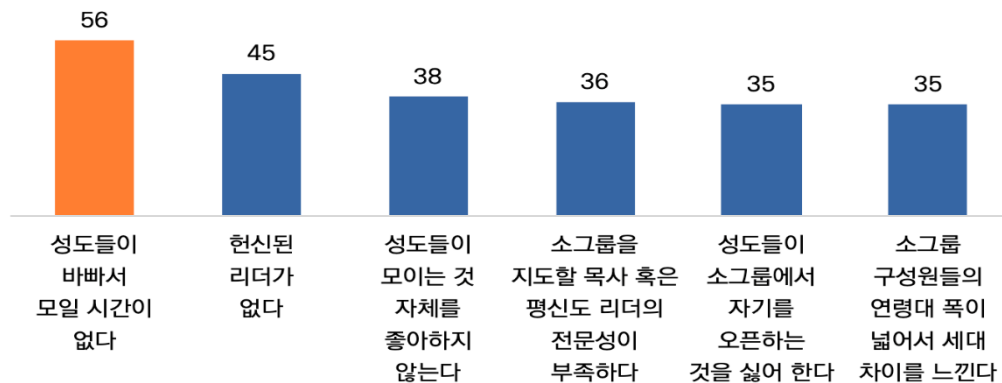
5) 소형교회 소그룹

31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한국교회 소그룹활동 실태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교회출석자 중 소그룹 활동자 1000명, 지앤컴리서치, 2023.04.)

32 위와 동일

소그룹 관련 한국교회 조사를 해보면 특이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언뜻 생각하면 소그룹은 소형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대형교회가 잘 된다. 앞의 6쪽에서 언급하였듯이 30명 미만 소형교회에서 소그룹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46%인데 반해 500명 이상 중대형교회는 95%가 소그룹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럼 소형교회의 어떤 점 때문에 소그룹 사역이 잘 안되는 걸까? 현재 한국교회에서 소그룹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교회는 40%에 불과하고 60%는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편으로 조사됐다.³³ 소그룹 운영이 잘 안되는 교회들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대체로 소형교회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50명 이하 소형교회 목회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성도들이 바빠서 모일 시간이 없다’ 56%, ‘헌신된 리더가 없다’ 45%, ‘성도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38%, ‘소그룹 지도할 지도목사/평신도리더의 전문성 부족하다’ 36%, ‘성도들이 자기 오픈하는 것을 싫어한다’ 35%, ‘소그룹 구성원 간 세대 차이를 느낀다’ 3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응답들을 분류하면 크게 성도들의 문제와 리더의 문제로 대별된다. 그런데 소그룹이 잘되는 교회들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한 교회들일 것이다. 소그룹으로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을 만나 질문한 적이 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해서 소그룹이 잘 되고 있나요?” 이 목사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셨다. “소그룹은 누구 핑계대 것도 없이 목사의 목회철학이지!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면 100이면 100 모두 실패할 거야!” 위에서 소그룹 안되는 이유들은 모두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의 핑계로 들리기도 한다. 목회자의 목회 철학, 목회자의 강한 의지가 앞에서의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소형교회가 소그룹 운영이 잘 안되는 이유 (50명 미만 소형교회 담임목사, 1+2+3순위, N=133, 상위 6위, %)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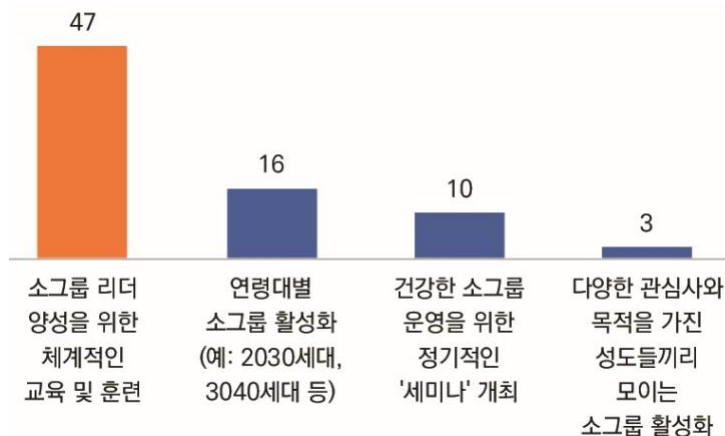


33 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목회환경과 목회실태조사”, 전국 교회 담임목사 434명, 모바일조사, 2022.08. 지앤컴리서치. 이 조사에서 교회규모별로 소그룹 운영수준이 차이가 나는데, 소그룹 운영이 잘된다는 응답은 '50명 미만교회' 34%, '50-99명' 40%, '100-499명' 46%, '500명 이상' 66%로 나타났다.

34 위와 동일

그렇다면 소형교회가 소그룹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 미주 한인교회에서도 소형교회가 한국교회만큼 많기 때문에 이 주제는 앞으로 미주 한인 소형교회 소그룹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앞의 17쪽에서 목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소그룹을 강화시키기 위한 필요 요건에 관해 설명하였는데, 여기서는 동일 항목에 대해 50명 이하 소형교회 목회자들의 응답을 분석해 보았다. 소형교회 목회자들은 소그룹 강화 필요 요인으로 가장 우선적인 대답이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이었는데, 이 응답이 4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연령대별 소그룹 활성화’ 16%, ‘정기적 세미나 개최’ 1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전체 목회자 응답과 비교해 소형교회 목회자들은 리더 교육/훈련에 대해 더욱 목말라 있었다.

그림) 소형교회 소그룹을 강화시키기 위한 필요 요건
(50명 미만 교회 담임목사, 상위 4위, %)³⁵



6) 취향 소그룹

지금까지는 개인의 신앙적 배움과 실천을 위한 신앙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여기서는 취향 소그룹에 대해 살펴보겠다. 취향 소그룹이란 ‘취미, 운동, 관심사(독서 모임 등) 등의 취향과 관심이 동일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일컫는다. 교회 성도들에게 취향 소그룹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았다. 10명 중 6명가량(58%)이 교회에서 취향 소그룹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³⁶ 나와 맞는 취향 소그룹이 있다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자가 81%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록 신앙

35 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목회환경과 목회실태조사”, 전국 교회 담임목사 434명, 모바일조사, 2022.08. 지앤컴리서치.

36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한국교회 소그룹활동 실태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교회출석자 중 소그룹 활동자 1000명, 지앤컴리서치, 2023.04.)

중심이 아닌 취향 소그룹이지만 취향 소그룹에서도 말씀/삶을 나눌 의향이 있다는 의견도 88%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교회에서 등산이나 운동 등 취향 소그룹을 운영할 때 조심할 게 있다. 예컨대 등산반의 경우 교인들끼리 등산을 올라가면 꼭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럼 같은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음주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교회에서의 취향 소그룹이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취향 소그룹을 활성화 시키려면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말씀 한구절 읽고, 마칠 때 기도하고 헤어지는 등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아예 교회 차원에서 취향 소그룹 가이드라인 규정을 작성,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림) 취향 소그룹 참여 의향
(매우+약간 있다 비율, %)³⁷



*4점 척도임

그림) 취향 소그룹에서 말씀/삶을 나눌 의향(취향소그룹 참여의향자, 매우+약간 있다 비율, %)³⁸



*4점 척도임

4. 결론. 소그룹 사역 전략 방향

본 연구는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특징, 특히 심화하는 개인의 소외감, 고독감 등의 병리적 현상 속에서 교회 내 소그룹의 목회적 의미를 고찰하고, 실제 조사 통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소그룹의 실태와 유익함 그리고 운영상의 제약과 개선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그룹 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고독사 증가,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 폭발적인 우울증 환자 증가 등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파편화되고 느슨한 관계를 지향하는 현대인의 인간관계 변화와

37 위와 동일

38 위와 동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돈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여, 이는 더욱 개인의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이러한 외로움은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소그룹에 참여하는 성도와 참여하지 않는 성도 간의 외로움 체감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드러나, 소그룹이 외로움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분석 결과, 대다수의 교회가 소그룹 사역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성도들의 정기적인 소그룹 참여율은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소그룹 미참여의 주요 원인은 시간적 제약과 필요성 부재였으며, 이는 교회 차원에서 소그룹 모임 시간 조정,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 개발, 그리고 소그룹의 목회적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그룹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공동체성 강화에 지대한 유익을 제공하고 있다. 소그룹 활동자들은 기도 응답 경험, 서로에 대한 신뢰, 외로움 극복, 심리적 안정감 등을 비참여자보다 훨씬 높게 경험했다. 특히 소그룹 활동자들이 비활동자에 비해 교인들과의 실제적인 교류(식사, 여행, 봉사활동 등)가 활발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받는다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 소그룹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단위임을 입증했다. 나아가 소그룹 활동은 전도에 대한 의지와 실제적인 전도 행위에서도 비활동자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교회의 양적 성장에 있어서도 소그룹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매주 소그룹을 운영하는 교회일수록 교인 수가 증가하는 경향은 이를 더욱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소그룹 운영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오프라인 모임이 주를 이루었으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모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거주지역보다는 연령이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소그룹 편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삶을 깊이 나누기 위한 동질적인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소그룹 활동 내용에서는 말씀 나눔과 친교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삶을 나누고 중보 기도하는 비율이 높은 교회가 성장하는 양상을 보여, 소그룹 내에서 깊이 있는 관계 형성과 영적 교류가 중요함을 시사했다. 교재의 정기적 제공 역시 소그룹 활성화와 교회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소그룹 만족도와 관련 성도들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목회자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목회자가 교회 내 소그룹 구성원들 또는 리더와 깊이있는 대화를 가져 이 인식 차이를 좁히는 게 우선적인 과제라 하겠다. 성도들은 소그룹 운영 시 '비밀 보장'을 가장 중요한 주의점으로 꼽았으며, '불편한 사람', '이야기 독점', '세대 차이' 등이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소그룹 리더의 세심한 모임 진

행 능력과 함께, 구성원 간의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말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소그룹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소그룹 리더’의 중요성 역시 통계적으로 명확히 드러났다. 목회자들은 소그룹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리더 양성 교육 및 훈련’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성도들은 리더의 자질로 ‘구성원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 조성 능력’과 ‘긍정적인 모임 이끄는 능력’을 요구했다. 이는 리더의 영적 역량뿐만 아니라 탁월한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이 소그룹 성공에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전체 교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형교회(50명 미만)의 경우 소그룹 활성화가 되지 않아 각 교회마다 고민이 많은데, 소형교회의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과제로 ‘헌신된 리더의 부재’와 ‘리더의 전문성 부족’이 응답돼, 리더 선발 및 교육이 소형교회 소그룹 활성화의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종합해 보면,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개인주의와 단절의 시대에 교회는 소그룹을 통해 진정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성도들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치유하며, 영적 성장과 전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을 본 연구는 통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소그룹은 더 이상 교회의 선택적 사역이 아닌, 현대 사회의 요청에 응답하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필수적인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소그룹 사역을 재정 의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첫째, 목회자들은 설교 강단에서 다양한 교육적 경로를 통해 소그룹의 목회적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둘째,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리더들이 탁월한 촉진자로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깊이있는 삶과 신앙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비밀 보장, 경청, 배려 등 소그룹 내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리더십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충분한 모임 시간, 적합한 모임 장소, 온라인 활용 등 현대인의 삶의 방식을 고려한 소그룹 운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넷째, 소그룹 내에서 단순히 성경 공부를 넘어선 깊이 있는 삶의 나눔과 중보 기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취향 소그룹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소그룹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되, 명확한 신앙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소그룹은 파편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과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지지가 되어주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기능한다. 본 연구가 제시한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제언들이 한국교회 소그룹 사역의 발전과 성숙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더욱 의미있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사람들의 변화는 대그룹(집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소그룹에서 변한다.”

- 새들백교회(릭워렌목사)-

참고문헌

국문서적/자료

-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2023.02.
- 보건복지부,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2024.10.
- 통계청,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24.10.
- 남인순 국회의원실, “우울증 환자 100만명 시대 20대 여성 가장 많다” 보도자료, 2023.10.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모임 및 취향 소비 관련 인식 조사” 2022.09.
- 대한민국 정부 지표누리, 국민삶의지표, “사회적 고립도” 파트, 2024.12.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서울:규장, 2023.09.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 서울:두란노, 2025.02.
- 목회데이터연구소, “소그룹실태조사”, 2021.09.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한국교회 소그룹활동 실태조사” 2023.04.
- 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목회환경과 목회실태조사”, 2022.08.

언론보도

- 노컷뉴스, “빈곤이 낳은 '외로운 죽음'...취약계층에 왜 늘어갈까” 기사 참조
(<https://www.nocutnews.co.kr/news/5831349>)

영문서적/자료

- Pew Research Center, “What Makes Life Meaningful?” Views From 17 Advanced Economies, 2021.11.18.

<필자약력>

지용근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주)지앤컴리서치 대표이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한국갤럽 연구본부장과 주)글로벌리서치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적조사>,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추적조사>, <한국인의 종교의식 및 신앙실태 추적조사> 등 주요 교단 및 기독교 단체와 다양한 기독교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했다. 2019년 목회데이터연구소를 설립, 지금까지 매주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주요 통계자료를 전국 26,000여 명의 목회자와 한국교회 리더십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주간리포트 <넘버즈>를 발행하고 있으며, 저서로 <한국교회 트렌드> 시리즈를 2022년부터 대표저자로서 매년 출간하고 있으며,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대표저자),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회>, <격차의 시대, 격이 있는 교회와 목회>(공저)가 있다.